

광주의 골목길

③ 사동 사직(안)길



운치가 느껴지는 사직공원내 사직길.

길을 잃어도 좋고 헤매도 좋은 사직공원 길의 고즈넉한 풍경

문득 길을 잃고 싶을 때가 있다. 정처 없이 헤매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나는 그럴 때면 사직길(사직안길)을 걷고 싶어 한다. 사직길과 첫 인연은 무척 현실적인 것이었다. 8년 전, 그러니까 막 군대를 전역한 내게는 오십 만원이 있었다. 무려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기숙사 생활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무조건 자취를 해야 한다는 신념(나는 방이 있어야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믿고 있었다) 하나로 〇〇〇신문을 뒤적였다. 자취방의 조건은 간단했다. 보증금이 없거나 30만원 이하여야 했고, 월세는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 간단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방은 사동, 양동, 방림동 정도에 불과했다. 위로가 되는 건 그 동네들에는 그런 방이 무척 많다는 신문상의 정보였다.

중개수수료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발품을 팔았다. 출지에 도심 속 도보여행자가 되었다. 그렇게 삼일 째 되던 날 사직안길에 들어서게 됐다. 길지인 나는 그 길에서 잠깐 길을 잃었다. 그런데 길을 잃었음에도 평온했던 건 그곳의 건물들이 나지막해서가 아닌가 싶다. 나는 목적을 잃고 그 골목을 헤매다. 목적 없이 걸어본 게 오랜 만이었다. 그러다 상당한 크기의 근대목조 건축물인 사동 최부자집을 발견했고 발길을 멈추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일단 사직길과 사직안길에 대한 구별부

조선 태조 3년때 설치된 사직단 동물원 들어서며 허물었지만 1991년 우치공원 생기며 복원 아침 햇살·야간 조명과 함께 감성 일깨우는 산책로 조성

터 해야겠다. 광주에 살면서 사직공원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직길은 바로 그 공원을 관통한다. 반면 사직안길은 공원과 천변로 중간에 위치한다. 그런데 여기서가만, '사직'이란 용어는 광주사람이 아니라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부산 동래구에는 사직동이 있고 서울시 종로구에도 사직동이 있다. 그리고 광주의 사직길까지 이 세 곳의 사직은 모두 뜻이 같다. 종묘사직이라 말할 때의 그 사직이다. 사(社)는 땅의 신을 의미한다. 직(稷)은 곡물의 신을 의미한다. 이 둘의 합성어인 사직은 농경사회에서는 국가 그 자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때문에 사직공원에 오르면 사직단이란 제단이 있는 것이다. 참고로 사직공원의 사직단은 조선 태조 3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말이 나온 김에 사직공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 사직공원에는 과거 동물원이었던 터가 있다. 이 동물원은 근대들이 사직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섰다고 한다. 가끔 이곳에 여전히 동물원이 있는 상상을 해본다. 총장로 옆의 동물원이라..... 동물들과 사람들, 두 종족 모두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다. 숲길 잘했다. 개인적으로 사직길과 사직안길 나들이는 아침이나 해거름 이후를 추천하고 싶다. 사직공원은 무등산을 향해 비탈이 져있기 때문에 일출을 비롯해 상수리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젖기 좋다. 무더운 여름밤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조명길을 걷다 맥주 한 잔을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골목은 길을 잃고 싶을 때 들르는 게 가장 좋다. 길을 잃어봤자 앞에는 광주천, 뒤에는 공원이 있다.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시라. 때문 하나를 잃어,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때도 있으니 적정한 마음이 그림자면 들려보시라. 발 밑에 굴러다니는 상수리열매가 잃었던 소소한 웃음을 되찾아줄지도 모를 일이다. <김용태 시민기자·소설가>

FISU 국제기술위, 광주U대회 점검 '녹색불'

2주간 각 분야별 회의·세미나 경기 세부일정 결정·보완 논의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CTI(국제기술위원회) 존 위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38명)은 지난 2주 동안 광주를 방문해 종목별로 진행된 제2차 점검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업을 제외한 20개 종목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점검은 FISU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전수를 위한 스포츠 세미나를 비롯해 경기운영, 경기시설, 선수촌, 식음료, 숙박, 수송, 정보통신, 안전, 미디어 등 대회 전반에 대해 분야별 업무담당자와 심도 있는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점검 방문으로 종목별 세부 경기 일정을 잠정 결정하고 경기장내 코트, 선수대기실, 의무실, 도핑실 등 각종 기능실 배치 계획을 최종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구는 전 경기를 염주수영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결승전 관람석을 최소 5000석 이상 요구하



지난 5월 29일부터 6월11일까지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제2차 점검활동에 나선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국제기술위원들이 농구경기장으로 활용될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살펴보고 있다. <U대회 조직위 제공>

는 농구는 광주·전남에 적절한 경기장이 없어 전주실내체육관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최종결과는 FISU 점검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직위가 기존 경기장의 최대한 활용을 통해 경기장에 최소 비용을 투자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흑자대회' 개최라는 목표에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가 지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지만, 이번 점검 방문을 통해 종목별 기술감독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하고 미흡했던 사항은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포래상담 생명지킴이'로 청소년 자살 적극 대처

고등학교 동아리 회원 90명 징후 발견·신속 조치 훈련

광주시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하나로 지난 14일 오후 광주 금호고등학교 1층 음악실에서 고등학교 포래상담 동아리 회원 90명을 대상으로 '희망나무 키우기'라는 주제로 '포래상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대상자별·특성별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를 활

용하며 학생들이 자살징후 식별능력, 자살에 대한 민감성, 자살위기 개입방법 등을 익히고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역할극 등 3단계로 진행했다.

특히 역할극에서는 한국형 실제 동영상 상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통해 자살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통계청과 한국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광주지역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률은 9.2명으로 특·광역시 평균 7.8명보다 높고, 청소년 자살

생각률은 20.1%로 전국 1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사도 사실을 가장 많이 알리는 대상으로 주변 친구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자살예방센터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태를 고려해 학교에서 운영중인 포래상담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포래상담가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해 지난해 총 2회 147명을 양성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오늘부터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진행

500㎡ 미만 430여 곳 대상 위생·식재료 관리 집중 지도

광주시는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위생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500㎡ 이상 153곳에서 진단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식중독

발생 저감효과와 영업자의 호응을 얻어 올해는 270~499㎡ 규모의 음식점 430여 곳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늘렸다.

진단 서비스는 ATP측정기(세균오염 검사 측정기) 등을 이용해 ▲개인위생 ▲환경위생 ▲식재료 등의 관리상태 등을 사전에 집중 진단하고, 각 업소가 취약 부분을 집중관리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철호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광

주시는 지난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사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2015년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각종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만큼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즉시입주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 010-4451-6686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용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1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